

'대선 부정선거 의혹'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 격화

군·경찰, 野 지지자들과 충돌... 11명 사망·700명 넘게 구금 마두로 "야당 후보 곤잘레스에 폭력사태 모든 책임 물을 것"

대선 개표 결과를 둘러싸고 '부정 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군과 경찰의 강력 대응 방침 속에 야권 인사와 시민들에 대한 줄세우기 이어지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에 놓인 양상이다.

인권단체 포로 폐납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한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대선과 관련한 시위로 이날 오후 4시 현재 1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중에는 (미성년자인) 15살과 16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포로 폐납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사망자를 6명으로 집계한 바 있다. 이들 사망 사례는 모두 '하루 만에' 발생한 것이라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앞서 베네수엘라 군도 성명을 통해 "전날 전국 여러 지역에서 공공기관 건물이 파손되고 국가 정체성의 상징물이 부서지는 등 폭력 행위가 이어졌다"며 "우리 장병 1명이 총상을 입고 숨졌다는 사실을 국민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군은 경찰관을 포함해 48명이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베네수엘라 군은 이번 시위를 '제국주의 미국과 그 동맹국의 지원을 받는 미디어 쿠데타'이자 '패배를 예견한 정치단체들의 사전 계획에 따른 증오와 비이성의 표출'이라고 힐난하며 "군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우리의 최고 통수권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무조건적인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대선 이후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선을 확정 받은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모두 민주야권 측으로 돌리면서 "(야당 후보인) 곤잘레스 우루티아에게 모든 책임을 물겠다"고 경고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당국도 이번 시위를 '정부 전복' 시도로 간주하고 사태를 통제하기 위한 작전에 착수하겠다고 천명했다.

레미히오 세바요 내무·법무부장은 이날 아침 국영 TV 방송 생중계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를 저지하고 영토 내 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며 "차베스 동상 파괴 등 국가 분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직접적인 공격을 차단하고 범법자를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베네수엘라 검찰은 이미 시위자 중 700여명을 구금했다고 공개했다.

타레크 윌리엄 사브 검찰총장은 "소요를 주도하거나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749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며 "권력에 저항한 만큼 경우에 따라선 테러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핵심 인사 한 명도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베네수엘라 민주야권 연합에 참여한 정당 중 한 곳인 볼룬타드 포플라르(Voluntad Popular)는 엑스(X·옛 트위터)에 "프레디 수페르라로 정적



베네수엘라 대선 개표 결과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대가 30일(현지시간) 카리카스 거리를 가득 메운 채 집회를 열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대선 개표 결과를 놓고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격화해 지금까지 최소 1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문이 납치됐다"며 "대선 개표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마두로 독재정권의 억압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썼다.

전날 밤 민주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우리가 파악한 결과 우리의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는 약 620만표를 확보해, 270만표에 그친 마두로에 압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두로 대통령이 510만표, 곤살레스 후보가 440만표가량을

얻었다며 마두로 대통령 당선을 공식화한 바 있다.

마차도는 이날도 곤살레스와 함께 카리카스 거리로 나와 마이크를 잡고 "우리의 승리는 명백하다"며 "대중의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우리가 협상할 의향이 있는 유일한 것은 정부 전환 뿐"이라며 지지자를 독려했다.

일각에선 마두로와 곤살레스를 포함해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 10명의 총득표율이 109.2%를 기록했다고 하며, 이는 '개표 부정'의 또 다른 증거라는 주장

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이스 이나시우 톨라다시우 브라질 대통령을 비롯한 국제사회 주요 지도자들이 '개표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당국은 파나마 및 도미니카공화국 간 항공편 운영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카리카스에서는 집권당 측 주도로 마두로 대통령 지지자들의 '맞불' 거리 행진도 진행됐다. /연합뉴스

하마스 수장 이란서 피살...중동 긴장 고조

이란 최고지도자 "가혹한 보복" 예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서열 1위인 이스마일 하니에 정치국장이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문한 테헤란에서 암살되면서 악화일로에 중동 정세에 또 하나의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

가자지구 전쟁에서 촉발된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전면전 위기 속에 이스라엘의 속적 이란 수도에서 하니에 일인자 암살 사건까지 돌출되면서 5차 중동전쟁 발발 등 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당장 아이야틀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가혹한 징벌"을 경고하며 보복을 천명하고 나섰다.

하마스는 3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하니에 국장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시운주의자(이스라엘)에 의해 순교했다고 발표했다.

하마스 성명은 "지도자 하니에가 이란의 새 대통령 취임식 참석 후 시운주의자의 기만적인 속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가자 수도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통령 취임 행사에 초대된 '귀빈'이 암살되자 이란 당국은 최고국

가안보회의(SNSC)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란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복수를 다짐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날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를 긴급소집한 뒤 하마스 정치 지도자 하니에의 살해에 복수하는 것이 이란의 의무라고 언급했다고 로이터통신, 스푸트니크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란이 하니에 암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과 이란간 직접적인 무력 충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통령 취임일에 자국 수도에 초청했던 저항의 축 지도자 가운데 한명이 암살됐다는 점에서 이란에게는 치욕적인 사건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보복을 계획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저항의 축의 일원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최근 골란고원 추격장 폭격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던 만큼 이번 하니에 암살이 전면전 발발의 촉매가 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의원 99% 대선 후보 해리스 지지

후보선출투표 5일까지 진행

다음주 부통령 후보 발표

미국 민주당이 내달 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르면 내주초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발표한 뒤 경합주 동남부세에 본격 돌입, 공화당 대결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J.D. 밴스 상원의원 콤비에 맞서 바람몰이를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공식 절차인 호명투표를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DNC는 호명투표 후보에 올린 인사를 추천하는 청원 절차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유일한 후보로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전국 대의원 3923명이 해리스 부통령을 호명투표 후보로 정원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참가 대

의원 99%의 지지를 얻었다고 DNC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월5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달 19~22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해리스 부통령의 수락 연설 등 일정을 진행하며 후보 지명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은 이르면 내주 초인 내달 5일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해리스 부통령이 6월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여는 유세에 그의 부통령 후보를 처음으로 대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부통령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됐을 조지 쉐피로가 지지사로 있는 곳이다.

로이터는 해리스의 첫 유세 장소는 "쉐피로가 러닝메이트 최종 후보 명단의 최상위에 올랐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리스 선거캠프 측은 첫 유세 도시 선택에 대해 너무 많은 의미부여는 하지 말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지명된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와 함께 7개 경합주를 돌며 쉐피로 유세를 벌 예정이다.

필라델피아 이외에 위스콘신주를 비롯, 미시간주(디트로이트), 노스캐롤라이나주(롤리), 조지아주(서버나), 애리조나주(피닉스), 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에서 유세 일정이 계획돼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앞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와 관련,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우주비행사 출신으로, 걸프전 당시 해군으로 '사막의 폭풍' 작전에 참여했던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켈리 상원의원과 함께 쉐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비롯, 팀 웰즈 미네소타 주지사, 앤디 버셔 쉐퍼드 주지사, 피트 부티지 지 교통부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이은이 | 조선의
퍼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